

개념의 연관성을 통한 신화분석

- 정치와 구원의 신화적 개념을 예로 들어*

최원오**

1. 신화를 해석하는 관점
2. '정치'와 '구원'의 신화적 상상과 공간체계, 그리고 의미 분석
3. 결론을 대신하여: 신화적 개념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신화분석 방법론의 정립과 확장

1. 신화를 해석하는 관점

신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서구에서 신화를 해석하는 관점은 민속학, 인류학, 종교학, 심리학, 철학, 문학비평(또는 문화비평) 등 인접 학문의 지대한 관심 아래 마련되었다.¹⁾ 이는 한국 신화를 연구하는 관점에도 영향

* 이 논문은 2011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광주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이는 두 번에 걸친 로버트 시걸의 '신화 이론 총서 편찬 작업'들에서 잘 확인된다.

작업 1. Robert A. Segal ed., Theories of Myth,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6; 1.Psychology and Myth. 2.Anthropology, Folklore, and Myth. 3.Philosophy, Religious Studies, and Myth. 4.Literary Criticism and Myth. 5.Ritual and Myth-Robertson Smith, Frazer, Hooke, and Harrison. 6.Structuralism in Myth-Levi Strauss, Barthes, Dumézil, and Propp.

작업 2. Robert A. Segal ed., Theorists of Myth Series. 1. The Myth and Ritual School: J. G. Frazer and the Cambridge Ritualists. 2. The Poetics of Myth(Eleazar M. Meletinsky, tr Guy Lanoue & Alexandre Sadetsk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8). 3. Kenneth Burke on Myth: An Introduction(Laurence Coupe,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5). 4. Jung and the Jungians on Myth: An Introduction(Steven F. Walker,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5. Political Myth: A Theoretical Introduction(Christopher G. Flood,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6). 6. The Structuralists on Myth: An Introduction. 7. Northrop Frye on Myth: An Introduction. 8. Rene Girard and Myth: An Introduction(Richard J. Golsan/ New York & London:

을 끼쳤고, 그에 따라 소중한 성과가 학계에 제출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구조주의 관점에서 신화 그 자체가 문학 작품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정치하게 분석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신화 작품론과 더불어 신화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적, 국제적 비교 역시 구조주의 관점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신화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면 신화 해석에 있어 어떤 관점, 또는 어떤 방법론이 유효한가? 이 질문의 답이 위에서 지적한, 신화학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신화 해석은 관점, 방법론의 우열을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이나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신화이기에 신화학자들의 생산적 고민은 깊어져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필자는, 한국 신화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생산적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여러 신화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이는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한 대립적 구조에 의한 신화 해석과 일견 유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다수의 한국 신화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신화 원리를 ‘대립 개념’이 아니라 ‘개념들 간의 상관성’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²⁾ 필자는 이와 관련된 두 차례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³⁾ 따라서 이 논문은 그 연구들을 아우르는 관점을 구체화하여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정치와 구원의 신화적 공간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Garland Publishing, Inc., 1993). 9. Cassirer and Langer on Myth: An Introduction(William Schultz,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2000). 10. Myth and Religion in Mircea Eliade(Douglas Allen,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8). 11. Martin Buber on Myth: An Introduction(S. Daniel Breslauer,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8).

2) 이러한 연구 관점은 여러 신화 작품들이 생산,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발견 가능케 해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한두 번의 연구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최원오, “창세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사유의 재현과 변주-창세, 홍수, 문화의 신화적 연관성을 통해-”, 『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6.; 최원오, “창세신화의 창세원리에 담긴 인문정신-한국과 나바호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12.

2. '정치'와 '구원'의 신화적 양상과 공간체계

2.1. '신화적 개념'의 연관성을 통한 신화분석 방법

신화는 세계에 대한 인류의 인식 산물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지 않고서 우리는 고도의 상징체계인 신화의 출현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르주 비뇨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카시러의 이론을 빌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상징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1)우리가 느끼고 행동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사물을 습득하게 될 때의 활동 형태. 2)이와 같은 습득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될 때의 표상 형태. 3)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지각 덕분에 우리가 세계의 의미나 개념을 구축해 나갈 때, 그리고 그것들을 세계에 적용하게 될 때의 의미 작용 형태, 바로 그런 것들이 표상이다.”⁴⁾라고 하였는바, 이를 신화의 출현에 적용하여 보면 신화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고 행동하여 사물을 습득하고, 여기서 점차 세상을 지각하게 되어, 마침내 세계의 의미나 개념을 구축하고 다시 그것을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승신화를 예로 들어보자. 농경과 더불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인간은 동식물의 탄생과 죽음을 보편적으로 목도하게 된다. 특히 식물의 씨앗이 땅에 묻힌 뒤에 싹이 트이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의 반복 순환 과정은 인간에게 소멸과 출현, 탄생과 죽음에 대한 지각을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은 개개의 구체적 식물에 착목함으로써 습득된 것이 아니라 식물을 집합적 대상으로 보면서 습득한 지각에 가깝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한 개체의 죽음에 한정된 ‘구체적 죽음’을 지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인간에게 죽음의 의미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만든다. 인간은 왜 죽는가?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불가해적 질문은 산 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념화하도록 유도한다. 죽은 자들의 세계인 ‘저승’ 공간은,

4) 조르주 비뇨, 『분류학의 유혹: 생각하기와 조직하기』, 임기대 옮김, 동문선, 2000, 31면.

죽음이라는 구체적 현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죽음의 의미와 그에 대한 각종 개념이 구축되는 과정, 즉 추상화되어 가는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그리고 신화는 바로 우리가 세계를 구체적으로 지각한 결과 얻게 되는 의미와 개념이 다시 구체적 세계에 적용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지각, 의미와 개념의 구축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준거다. 그리고 그 인식과 해석이 신성한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지면 신화가 된다. 신화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였고, 인식하였는가를 신성한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신화는 무수한 개념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므로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그 무수한 개념의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신화적 개념은 단독으로, 또는 개념들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신화 작품을 또는 다수의 신화 작품을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독의 신화적 개념으로, 때로는 신화적 개념들 간의 연관성 속에서 신화를 해석해 보자는 것, 이것이 필자가 제시하는 신화 해석 방법론이다. 신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신화소를 분석하는 것, 개별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의의가 있지만, 신화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들 작품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신화적 사고나 원리를 분석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신화적 개념들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하면 우리는 신화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화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화하려는 작업을 한 바 있다. 모두 창세신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창세, 홍수, 문화의 세 개념을 통해 창세신화와 홍수신화의 신화적 연관성과 그들 신화에 깔려 있는 신화적 원리를 구명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창세신화에서의 최초의 창세상태가 홍수신화에서의 ‘홍수’라는 사건을 빌어 단순히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변주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는데,

그 변수의 지향점은 바로 문화였다. 이렇게 보면 ‘홍수’는 창세의 변수이면서 인류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화적 개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홍수신화에서 ‘홍수’는 사건이 아니라 신화적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⁵⁾ 한편, 두 번째 연구에서는 창세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로서 창조, 조판, 발견이라는 신화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모든 신화 연구자들이 창세신화에서의 ‘창세’를 단일 행위 또는 단일 개념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지만, 필자는 ‘창세’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념을 천착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천착을 통해 필자는 ‘창세’라고 하는 행위나 개념이 그렇게 단일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창세 원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왔던 방법이기도 했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보완하고, 또 무엇인가를 찾아나서는 행위, 이는 창세신화 속에서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창세신화 바깥에서의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⁶⁾

이처럼 신화적 개념들이 갖는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신화소 분석이나 개별 신화 작품 분석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신화적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치와 구원이라는 신화적 개념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방법론의 확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2.2. 정치와 구원의 신화적 양상

상식적인 얘기지만 신화에서의 정치와 구원은 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때의 정치와 구원은 범박하게 말하자면 신이 인간의 죄악을 벌하는 것이 정치이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와 구원은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비교적 명확한 원리에 근거하여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속신화에서의 정치와 구원의 양상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의 양상 : 창세신화 <천지왕본풀이>는 천상의 천지왕이 지상의 총맹부인과 결연하여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들이 복수

5) 최원오, 앞의 논문(2003).

6) 최원오, 앞의 논문(2007).

7) 赤松智城, 秋葉 隆 共編, 『조선무속의 연구』 상, 육호서점, 1937.

의 일월을 조정한 다음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인다는 내용의 신화이다. 그런데 이 신화에는 이들 말고도 또 하나의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수명장자다. 수명장자는 인간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갖은 포악을 일삼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천지왕은 그 수명장자와 대결을 벌여, 처음에는 고전하지만 결국 수명장자 일족을 징치하게 된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칠성풀이>⁸⁾에서 칠성님은 매화부인과 결연하여 자식을 낳는데, 매화부인이 한꺼번에 자식을 일곱이나 낳았다는 이유로 매화부인에게 소박을 주고, 자신은 집을 떠나 후실장가를 가게 된다. 그 후 일곱 자식(일곱 쌍둥이)이 칠성님을 찾아오자, 후실부인은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전실 자식들에게로 옮겨간 것에 앙심을 품고 전실 자식들을 죽이려다가 죽게 된다. 그런데 그 후실부인이 죽게 되는 사건이 흥미롭다. 소위 칼 심판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전실 자식 입장에서는 계모도 어머니이니 그 계모가 죄가 있다 하여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들을 두 번이나 죽이려 했던 계모를 그냥 살려둘 수도 없다. 그래서 계모를 벌하려는 자신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계모가 잘못된 것인지를 묻기 위해 칠 형제는 계모에게 칼 심판을 제의한다. 즉 자신들은 칼자루를 물고, 계모는 칼날을 물고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잠시 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계모를 세 동강 내어 죽인다. 여기서의 칼 심판이란 결국 하늘의 심판이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결말이다.

구원의 양상: 창세신화 <생곳>⁹⁾에서 석가는 여타의 창세신화에서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미륵을 물리치고 이승을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복수의 일월이 하늘에 떠 사람들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게 된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구원하기 위해] 석가는 서역국으로 부처님을 예불하러 간다. 거기에서 석가는 부처님께 복수의 일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부처님은 삼천 개의 구슬을 실에 꿰어야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한다. 이에 석가님은 세시애기의 도움으로 부처님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님의 도움으로 복수의 일월 문제를 해결한다. 이

8) 임석재, 『줄포무악』, 문화재관리국, 1970.

9)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추가편)』, 문교부, 1966.

신화는 다분히 불교적으로 윤색이 되어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석가가 처한 상황을 구원해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로서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징치와 구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양상 : 징치와 구원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징치와 구원의 신화적 개념은 좀 더 그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 점에서 먼저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차풀이>¹⁰⁾를 주목해 보기로 하자. 이 신화는 저승사자를 잘 접대해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런 류의 신화를 연명신화라 하는 것인데, 이 신화의 주요 등장인물인 김 장자가 그의 수명을 연장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징치와 연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기에, 이 둘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신화가 바로 <장차풀이>인 것이다. 김 장자는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는 인색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하여 조상신은 옥황상제에게 탄원을 하게 된다. 후손인 김 장자를 벌하여 달라고. 그러나 옥황상제는 김 장자의 조상신이 주장하는 말에 의거해 판단하기 이전에, 사자를 보내어 김 장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 결과 옥황상제는 김 장자에게 벌을 주도록 판결하게 된다. 그 판결이란 김 장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결을 시행하는 저승차사들은 김 장자가 내준 음식상을 받아먹고, 일을 영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김 장자 대신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을 잡아감으로써 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그 징치를 계기로 김 장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징치와 구원이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긴장 관계는 갈등 관계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하다. 김 장자를 징치하도록 결정한 것은 천상의 주재자 옥황상제이고, 그 징치를 수행하지 못한 저승사자들의 상관은 저승의 주재자 염라대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신화에서는 이 일 때문에 옥황상제와 염라대왕이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징치를 당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더 간단히 말해서 징치와 구원은 구분되어 인식되어 있음을 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10) 임석재, 앞의 책.

이를 통해 신화전승 집단의 내면적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징치[죽음에 대한 판결]는 옥황상제로부터 받는다는 것, 구원[죽음으로부터의 회피]은 저승사자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의 구분된 인식은 죽음을 둘러싼 인간 행동과 의식의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 신화적 사유인 것이다.

<장자풀이>에서의 구원과 신화의 양상은 <바리공주>¹¹⁾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바리공주>에서 오구대왕 부부는 결혼 후 연달아 딸을 여섯 낳는다.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들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딸만 계속해서 얻게 된 것이다. 이에 오구대왕은 일곱째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기를 버리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일곱째 아기는 하늘이 이들 부부에게 특별히 내려준 아기였다. 따라서 그 일 때문에 오구대왕 부부가 백약무효의 병에 걸린 것은, 신화적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필연적 결과였다고 하겠다. 즉 하늘이 오구대왕 부부에게 징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구원하는 일에도 하늘이 관여하는가? 그렇지 않다. 구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 서천서역국에 있다는 약수를 가져와야 오구대왕 부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바리공주는 길러준 정성은 없지만 낳아준 정성을 갚기 위해 서천서역국, 실은 저승으로 상징되는 곳까지 가서 약수를 가져와 그녀의 부모를 구원한다. 징치는 하늘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원하는 문제는 서천서역국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징치와 구원이라는 신화적 개념이 개별 신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징치와 구원은 서로 다른 공간, 즉 징치는 하늘과, 구원은 저승이나 서천서역국 등의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징치와 구원의 신화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신화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바, 징치와 구원이 특정 공간과 연계되어 사유되는 신화적 개념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11) 赤松智城, 秋葉 隆 共編, 앞의 책.

2.3. 정치와 구원의 공간체계

신화에서의 정치와 구원이라는 개념은 공간과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다. 즉 정치는 하늘과, 구원은 저승이나 서천서역국(또는 서역국)과 관련된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양상은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하늘’, ‘구원-지옥 또는 서역국’이라는 단일한 구도 보다는 보다 추상적인 구도를 떠올려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와 구원이라는 신화적 개념은 하늘이니 지옥이니 하는 구체적 공간보다 더 포괄적인 공간 개념 속에서 신화적 사유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수직적 공간과 수평적 공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다루었던 신화 작품에서 정치는 하늘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하늘은 지상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수직적 공간에 위치하여 있다. 이에 비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저승이나 서천서역국은 지상을 중심으로 수평적 공간에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정치는 수직적 공간과 상관성을 갖는 개념으로, 구원은 수평적 공간과 상관성을 갖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치는 수직적 공간 개념이고, 구원은 수평적 공간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럼 다른 신화 작품들을 예로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성조신가>에 보면, 황우양씨가 동풍에 쓰러진 일천 난간을 세우러 천하궁[하늘]에 올라간 사이 소진량이 황우양씨 부인을 잡아 소진뜰로 간다. 이에 꿈을 통해 부인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음을 안 황우양씨는 즉시 지상으로 내려와 아내를 찾아 소진뜰에 잠입한다. 이때 그는 우물가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우물에 물을 길러 온 부인을 만나 소진량의 집으로 숨어들어 간다. 이어 황우양씨는 소진량과 그의 가족들을 징치하고 부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이 있는 황산뜰로 돌아온다. 이러한 서사 전개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황우양씨의 동선이다. 그는 천하궁의 천사랑씨와 지하궁의 지탈부인 사이에서 태어나 스물 살이 되자 부인을 얻어 황산뜰로 내려와 가정을 꾸린 인물이다. 그 후 천하궁의 난간을 보수하기 위해 천하궁에 올라가게 되고, 부인을 납치한 소진량을 징치하기 위해

급히 황산뜰로 내려와 소진뜰로 가고 있는바, 이는 징치를 수직적 공간 개념으로 사유한 것과 상관성이 있다. 즉 황우양씨는 소진량을 징치하기 위해 수직적 공간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소진뜰로 와서 우물가에서 있는 버드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동일한 사유의 반영이다. 버드나무 뒤에 숨을 수도, 수풀 뒤에 숨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가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 부인을 만나고, 그리하여 소진량을 징치하게 되는 과정은 징치를 수직적 공간 개념으로 사유한 데서 기원한다.

<차사본풀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김치 원님은 과양생의 세 아들이 급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저승 세계의 염라대왕에게 그 미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다. 김치 원님에게 있어 염라대왕이 있는 공간, 이 신화의 내용에 의하면 수평적 공간에 위치하여 있는 저승 세계의 공간으로 강임을 파견하여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명한 것은 그러한 결정의 구체적 실행이다. 따라서 김치 원님에게 염라대왕이 있는 수평적 공간은 이승의 미제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있는, 구원의 공간이다. 그런데 좀 더 따져 보면 그곳은 구원의 공간만은 아니다. 징치의 공간이기도 하다. 김치 원님이, 이승에서 벌어진 급사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염라대왕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임이 저승으로 파견을 가는 과정에는 징치와 구원의 신화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노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강임은 조왕할망, 문전조왕의 도움을 얻어 일흔여덟 갈림길을 모두 알아낸 뒤 저승길을 고치고 있는 길나장을 만나기까지 수평적 이동을 계속한다. 구원의 공간에 이르는, 또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수평적 공간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 그는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아니 체포하여 무고한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행기못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다. 그런데 이 행기못은 배를 이용하여 건너가는 공간, 즉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럼 강임은 어떻게 행기못을 통과하는가? 신화에서의 묘사는 이렇다. “강임이 눈을 질끈 감고 행기못으로 뛰어드니 어느새 저승 초군문에 이르

렀다.”고. 이로 보아 그는 수직적 이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서 강임은 초군 문 기둥 밑에 망건을 벗어 머리에 베고 누워 염라대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염라대왕이 나타나자 이승 강임이 저승 염라대왕을 잡으러 왔다고 호통을 친다. 강임이 염라대왕에게 책임을 묻는, 즉 무고한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한 징치를 하고 있는 과정은 이처럼 수직적 공간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강임이 저승에 이르러 염라대왕을 대면하기까지의 과정에는 구원과 징치의 신화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수평적, 수직적 공간 개념이 맞물려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 양상은 염라대왕이 이승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강임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 겪어야 했던 여정을, 이제는 염라대왕이 저승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승으로 오는 것이니, 공간 이동의 양상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보자. 먼저 행기못이라는 공간을 다시 주목해 보면, 강임은 이승으로 돌아올 때도 행기못에 빠진다. 그러자 어느 순간 이승에 도착하게 된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건,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건 행기못은 유일한 통로가 되는 공간인 셈인데, 중요한 것은 이 행기못이 수직적으로만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즉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도, 저승에서 이승으로 갈 때도 행기못에 빠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는 염라대왕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것을 ‘내려오는’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승 세계에서의 시왕맞이에서도 염라대왕이 ‘내려오는’ 신격으로 묘사되었듯, 그리고 염라대왕의 다음 말, 즉 “강임의 눈은 속일 수 없구나. 강임아, 시왕맞이가 다 끝나가니 어서 인간 세상에 가 있어라. 모래 점심 때 동헌 마당으로 내려서겠노라.”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벌어진 무고한 죽음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해서 과양생 부부를 징치하기 위해 이승에 내려오는 신격이다. 따라서 징치를 위한 염라대왕의 이동 과정에는 수직적 공간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승이라는 공간 자체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염라대왕이 이승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징치와 관련된 순간, 또는 징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때에는 수직적 공간 이동의 양상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승과 저승은

수평적으로 이어져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염라대왕의 이승 방문으로, 김치 원님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구원되고), 그리고 동정국 버무왕 3형제의 억울한 죽음이 해결되는(구원되는)바, 이는 수평적 공간 개념이 구원과 연관되어 표출된 신화적 사유인 것이다.

그런데 신화 작품에 따라서는, 이제까지의 양상, 그러니까 수평적 공간과 구원의 상관성, 수직적 공간과 정치의 상관성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구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개념을 수평적 공간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앞서 들었던 창세신화 <천지왕본풀이>에 보면, 천지왕과 총명부인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천상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친자 확인을 받고 천 근 무쇠화살과 활 두 개를 받아 복수의 일월 중 한 개씩을 제치하는 내용이 있다. 복수의 일월은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을 타 죽게 하고 열어 죽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 좀 범박하게 얘기하자면 자연 재해로 인한 인간 세상의 고통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복수의 일월 중 한 개씩이 제치되는 것은 쌍둥이 형제에 의해 인간 세상이 구원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실현은 수직적 공간과의 상관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역시 앞서 보았던 <칠성풀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칠성님과 옥녀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쌍둥이가 천상에 있는 아버지 칠성님을 찾아가 친자 확인을 받고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려던 계모의 간계로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그 간계가 드러나 계모는 칠성님의 징치(수직적 공간 개념의 적용)를 받아, 또는 하늘의 징치를 받아 두더지, 실뱀, 모기 등이 된다. 그 후 일곱 쌍둥이는 지상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내려왔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다. 그렇지만 일곱 쌍둥이는 괘새의 도움으로 서천꽃밭에 가서 생명꽃을 가져와 어머니를 살려낸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의 수직적 공간 이동을 볼 수 있다. 일곱 쌍둥이가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 괘새의 등에 올라타고 서천꽃밭에 갔다 온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은 모두 수직적 공간 이동에 해당하며,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는 것, 즉 어머니를 구

원하는 것이 수직적 공간과의 연관성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서천꽃밭’이다. 서천꽃밭은 여러 신화 작품을 통해서 볼 때, 천상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서천꽃밭은 인간의 본원적 삶을 주관¹²⁾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재생시키는 것에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삶의 재생은, <칠성풀이>에서 볼 수 있듯 이미 죽은 목숨을 살려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의 아버지가 꽃감관으로 있던 곳이 천상에 위치한 서천꽃밭인데, 할락궁이가 그의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서천꽃밭의 생명꽃이다. 따라서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서천꽃밭은 수직적 공간 이동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구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수직적 공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신화적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 다루었던 구원의 양상과 앞서 다루었던 구원의 양상은 상이한 점이 있다. 앞서 다루었던 신화 작품에서의 구원은 인간의 육체적 생명에 직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예기치 않은 죽음이나 질병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관련된 육체적 구원이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 가져온 인간적 고통, 그로 인한 또 다른 고뇌(김치 원님, 강임의 경우처럼)가 해결되기(구원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 문제들과 관련된 구원, 즉 현실적 구원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구원의 양상들이 수평적 공간과의 연관성 속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루었던 구원의 양상들은 보다 관념적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생명꽃이 필요한 것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생명수가 필요한 것은 다르다. 후자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즉 구원되는 것은 관념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는 본질적 생명의 구원이라 할 수 있을 듯한데, 서천꽃밭의 생명꽃이 인간을 점지하는 꽃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양상은 대부분 자식(특히 아들)의 아버지 찾기와 관련되어 있다.¹³⁾ 아버지 찾

12) 이것은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에서 잘 확인된다. 서천꽃밭의 주인 명진국 생불할망은 서천꽃밭에서 키우는 꽃으로 인간 부녀자에게 아기를 점지한다.

13) 신화 작품에 따라서는 천상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는 것과 지상에 죽은 채 버려진 어머

기가 어떤 문제를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이 인간 세상의 고통 받는 만물이건, 죽은 어머니이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건 간에.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반드시 친자 확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피를 내어 그것이 서로 합해지는데에 따라 확인 가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것은 바로 ‘부-자’라는 수직적 관계 맺음의 확인에 다른 아닌 것이다. 이처럼 수직적 공간 이동에 의한 구원은 여러 겹으로 그 수직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부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라도, 수직적 공간 이동에 의한 관계맺음과 구원이라는 신화적 개념의 연관성¹⁴⁾은 방금 위에서 살핀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를 예로 들어보자. 이 신화에서 명진국 따님은 일곱 살 되던 해, 옥황상제에게 불려가 인간 세상에 가서 아기를 낳게 하는 생불이 될 것을 명받는다. 명진국 따님과 옥황상제는 일종의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후에 구삼신할멈과의 생불 차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명진국 따님은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주시기를(구원해주시기를) 청하게 되고, 결국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바, 이는 수직적 이동에 의한 관계맺음과 구원이라는 신화적 개념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도량선배 청정각씨 노래>¹⁵⁾를 하나 더 들어보자. 도량선배는 청정각씨와 배필을 맺은 뒤 첫날밤도 치르지 못하고 다음 날 곧바로 죽는다. 그러자 청정각씨는 통곡을 하게 되고, 그 통곡소리가 하늘의 옥황상제에게까지 들리게 되자, 옥황상제는 황금산 산신¹⁶⁾에게 명하여 무슨 일인지

니를 회생시키는 것이 수직적 공간 체계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자식이 천상에 있는 아버지와 지상에 있는 어머니를 연결시키고 있는 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천상과 지상을 잇는 수직선상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죽은 어머니를 회생시키는(어머니가 구원되는), 자식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있게 한 본질적 생명의 근원이 회복되는(구원되는) 셈이다.

14) 이것은 서울 지역본 <바리공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바리공주가 하늘이 낸 아기로 설정되는 것은 천상과의 관계맺음의 한 변이적 양상일 터, 그 아기를 버림으로 인해 오구대왕 부부가 병이 들게 되고, 바리공주는 수평적 공간 이동을 통해 그녀의 부모를 회생시키는, 즉 구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5)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16) 신화에서는 ‘성인’으로 지칭되나, ‘성인’은 함경도 무속에서 무당이 받드는 신을 일컫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황금산 산신으로 지칭했다.

를 알아보도록 명한다. 여기서 옥황상제와 황금산 산신은 청정각시의 통곡 소리 사건을 매개로 그 사건의 진상과 해결을 위한 수직적 관계를 맺는다. 실제로 황금산 산신은 남편을 꼭 한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청정각씨를 도와 네 번에 걸쳐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요컨대, 수직적 공간 이동에 의한 구원은, 반드시 천상이라는 공간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 천상 공간은 아버지, 옥황상제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맺음에 의해서만 구원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평적 공간과 연관성을 갖는 구원 개념, 수직적 공간과 연관성을 갖는 구원 개념의 차이점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수평적 공간과 연관성을 갖는 구원 개념에서는 그 구원을 실행하려는 자의 정성, 그리고 그 정성이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구원이 실현된다. 그러나 오직 수직적 공간과 연관성을 갖는 구원 개념에 의해서만 구원이 실현될 때, 그 수직선상에 위치한 아버지나 옥황상제의 권능과 권위라는 자장 안에 수용될 수 있을 때에만 구원이 제대로 실현된다.¹⁷⁾ 즉 총맹부인의 쌍둥이 형제가 천지왕의 친자로, 옥녀부인의 일곱 아들이 칠성님의 친자로, 원강암이의 아들 활락공이가 원강도령의 친자로 확인되었기에, 명진국 따님이 옥황상제와 특별히 맺어진 관계였기에 구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정치와 구원이라는 신화적 개념이 공간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는 수직적 공간과의 연관성 속에서, ‘구원’은 수평적 공간 및 수직적 공간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신화적 사고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평적 공간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 구원은 질병의 회피, 수명 연장과 같은 육체적 구원

17) <도랑선배 청정각씨 노래>의 경우, 옥황상제와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황금산 산신이 매개가 되어 구원되기에, 청정각씨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나타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황금산 산신(중으로 변신하여 나타남)과의 수평적 공간상에서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 공간 이동(중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그녀는 점차 도랑선배에게 수평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중에 요구되는 다섯 번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녀의 지극 정성이 그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¹⁸⁾, 정성을 통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신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수직적 공간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 구원은 복수 일월과 같은 자연재앙의 모면, 본질적 생명의 회생¹⁹⁾과 같은 보다 관념적인-인간 개개인의 구체적 몸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천상적 존재인 아버지나 옥황상제가 갖고 있는 권능, 권위와 수직적인 관계맺음을 통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신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징치보다는 구원의 신화적 개념이 더욱 복잡한 공간 체계를 보이는 것은, 무속신화의 전승집단이 구원을 더 중요한 신화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말해준다. 징치는 수동적 개념이고, 구원은 수동적 개념이면서 능동적 개념이기에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리고 징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사고이고 행위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관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구원 받기를 바라면서, 또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천상과 연결되는 수직적 공간 체계로, 저승이나 수평 공간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믿는 이계 공간과 연결되는 수평적 공간 체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징치는 멀리하고, 구원은 가까이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또한 징치는 누군가의 강력한 힘이 누군가에게로 영향을 끼쳐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어서,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파괴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구원은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 의해 구원을 받건, 자신의 정성을 보이거나 뇌물을 써서 구원을 받건 구원을 받는 자의

18) <도량선배 청정각씨 노래>에서 청정각씨는 질병의 회피, 수명 연장과 같은 육체적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가 추구하는 것이 남편과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넓게 보면 그녀가 추구하는 것 역시 육체적 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지금 정성을 드리고 남편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취하려 했던 행위-그것은 남편의 손을 잡으려는 것이다-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대해서는 최원오, “부부에 관한 신화적 탐색의 논리”, 『계간 미네르바』 17, 2004 봄, 112-123면 참조. 한편, <차사본풀이>에서 과양생의 세 아들이 급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구원-급사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지기를 바라는 것-도 범박하게 보자면 개개 인간의 육체적 수명에 대한 신화적 사고의 전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죽은 어머니를 살리는-이 점에서 바리공주는 약간 예외이긴 하지만-내용이 많은 것은, 어머니로서 상징되는 대지모신(大地母神)의 본원적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입장에서는 생산적 의미를 갖는다. 구원의 신화 개념이 정치의 신화 개념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4. 정치와 구원에 대한 의미 분석

앞서 필자는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정치와 구원의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은 공간 체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구원의 신화 개념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치는 공간체계상 천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천상에 떠 있는 복수의 일월은 지상에 대한 정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관련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복수의 일월을 정치와 관련지어 보지 않는 것은 복수의 일월을 자연현상이라는 객관적 상태로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죄’나 ‘실수’, ‘잘못’ 등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과 연계되어 나타나지 않는 복수의 일월은 결국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 거기에 투사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복수의 일월을 정치로 보는 경우, 그것은 석가에 대한 미륵의 예언이나 저주에 기인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차지한 석가에 대한 미륵의 정치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복수의 일월이 정치와 관련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쌍둥이 문화영웅이 천상에 올라가 부친을 만난 뒤 활과 화살을 받아 해와 달을 각각 하나씩 제치하게 되는데, 복수의 일월이 자연재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인간이 자연을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영웅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인 것이다. 정치가 천상의 개입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영웅이 이 세상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복수의 일월이 인간 세상에 대한 정치로 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석가는 비록 속임수로 이 세상을 차지한 창세신이지만, 그가 말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점. 복수의 일월이 뜨고 동물과 인간이 말을 하는 등 세상이 혼란스러워져도, 그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대별왕을 속임수로 이기고 이 세상을 차지한 소별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들이 부처님, 대별왕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했다더라도, 거기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노력이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²⁰⁾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앞서 논의하였던, 구원 개념이 갖는 두 가지 공간 체계는 더 세밀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원이 수직 공간 체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그렇다. 여기서의 구원은 천상적 존재의 권능과 권위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징치라는 것도 이러한 권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천상적 존재의 권능과 권위에 의한 징치와 구원이 짝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수직 공간, 또는 수평 공간 체계, 그 어느 쪽에 관련되는 구원이건 구원은 전적으로 천상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복수의 일월이 조정되는 것은 지상적 존재인, 그래서 인간적 존재에 더 가까운 쌍둥이 영웅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전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수직 공간 체계와 관련되는 구원에 인간적 노력이나 정성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징치가 수직 공간 체계와 관련된 천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고는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인간적 노력이나 정성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역시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 노력이나 정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구원이 수평 공간 체계와 관련되었을 때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가장 합당한 자료가 <바리공주>다. 바리공주의 부친, 또는 부모가 득병(得病)하게 된 이유는 바리공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버려진 바리공주는 누군가? 바로 하늘이 낸 아이다. 하늘이 낸 아이를 인간이 버렸다는 것, 그것이 이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득병의 이유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승으로 상징되는, 수평 공간 어디쯤의

20) <차사본풀이>에서도 김치 원님이 과양생이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했기에, 동정국 범을황제의 아들 3형제의 억울한 죽음이 해결될 수 있었다.

서천서역국에 있다는 약수를 가져와야 한다. 이 임무를 바리공주가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행과정에서 바리공주는 빨래를 해주다든지 다리를 놓아준다든지 등의 인간적 정성을 보임으로써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 안내를 받게 된다. 서천서역국에 이르러서도 바리공주는 약수를 지키는 신인 동수자 또는 무상신선을 만나, 그를 위해 3년 간 불을 때주고, 3년 간 물을 길어주는 정성을 보인다. 거기다가 3년을 함께 살면서 아들까지 낳아주는 정성을 보인 뒤에야 약수를 얻게 된다. 약수를 얻는 과정이 이렇게 지난할 수 있을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약수는 돈으로는 살 수 없다. 돈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정성과는 이질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다. 바리공주가 보인 정성을 보라. 그녀의 육체적·정신적 소산물이 아닌 게 없다. 이는 그 정성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든 육체적·정신적 정성이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구원을 바라는 자의 정성이,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자풀이>에서 저승차사들이 자신들을 접대하기 위해 마련된 음식상을 받고나서, 즉 육체적 허기를 해소하고 나서 마땅히 잡아가지 말 장자를 잡아가지 못하는 것은 장자의 정성을 일언지하에 부정할 수 없었던 데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구원의 문제와 인간적 정성을 보인다는 것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을 대신하여: 신화적 개념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신화분석 방법론의 정립과 확장

이상으로 정치와 구원이라는 신화 개념의 연관성을 들어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신화해석 방법론의 확장을 모색하여 보았다.

타 학문분야의 이론을 신화 작품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결국 신화 작품을 그 이론의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또는 그 이론의 자장 안에서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는 신화를 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신화를 해석하

려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구조주의적 방법이다. 신화도 문학 작품의 하나이기에,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신화를 해석하는, 소위 신화를 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구조주의적 방법은 한 작품-설화의 경우에는 유형이 이에 해당함-을 분석적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는 그 빛을 발한다. 그러나 독립적 성격을 갖는 여러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할 경우, 보다 큰 틀이 필요하다. 특히 무속신화의 경우,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신화적 사고는 한 신화 작품의 생성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무속신화 작품 전반의 생성에 걸쳐 두루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신화적 개념 간의 연관성을 통해 신화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하나의 신화적 개념은 작품에 따라서는 신화소로, 때로는 신화소로 취급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한 작품 전체에 두루 반영될 수 있으므로, 특정 사물 현상에 대한 보편적 지식의 총화 형태인 개념의 적용은 이들을 모두 아울러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화해석 방법론의 적용은 신화적 사고가 신화 작품뿐만 아니라 신화를 벗어난 곳의 지점, 예컨대 우리의 무의식적 사고나 행동까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 정치와 구원이 어떻게 신화적 공간 체계와 연관성을 갖는가는, 앞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줄 안다.

특정 사물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의미의 총화로서의 신화적 개념이 신화적 공간을 규정하듯, 이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규정하기도 한다.

- | | |
|-----|---|
| 정치 | 수직적 공간 ; 수동적 ; 권능과 권위 ; 도덕적 정치 |
| 구원① | 수직적 공간 ; 수동적 ; 권능과 권위 ; 본원적 생명의 구원(원형적) |
| 구원② | 수평적 공간 ; 능동적 ; 정성 ; 육체적 구원(개별적) |

본 논문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을 위에 정리하여 보았다. 이에 의하면 정치는 수직적 개념이다. 우리의 일상 담화에서 쓰는 ‘별(또는 천별)을 받다’, ‘저주를 내리다’ 등도 수직적 개념에서의 정치가 적용된 경우다. ‘별이 들어

오다’, ‘저주가 들어오다, 저주를 주다’ 등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벌’이 수직적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임을 잘 말해준다. 한편, 구원의 경우는 ‘명’과 ‘복’을 항상 수반하게 된다는 점, 즉 무속신화에서 명과 복을 받는 것은 곧 명과 복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구원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천명(타고난 수명)과 천복(하늘에서 내려 준 복)을 타고나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 믿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수직적 공간상에 위치한 ‘하늘’과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인간 탄생과 함께 실현되는 원형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투영되어 있는 담화라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명’과 ‘복’을 빌기도 하는데, 천명과 천복을 믿는다면, 살아가는 중에서의 명과 복을 비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명과 복을 비는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나 이때의 명과 복은 질병이라든지 예정에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막아보려는 심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천명, 천복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구원 심리라 하겠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속신화의 내용으로 잠시 되돌아가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무속신화에서 질병신이나 저승신은 신명(神名) 그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들은 인간의 대접 여하에 따라 명과 복을 주기도,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성을 다하면 천지를 감동을 시킬 수 있고, 귀신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것은 신 중심의 사고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고다. 즉 무속신화의 전승집단은, 명과 복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 신을 상위의 존재로서 두질 않는다. ‘나’가 ‘너’에게 정성을 다하면, ‘나’가 처한 상황을 ‘너’가 ‘지금 당장’ 구원해주어야 한다는, 수평적 사고의 발상이다. 또한 지극히 인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능동적 발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 관계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건 간에,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 것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쌍방 간의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다. 신화에서의 육체적 구원처럼,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이란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구원의 회구인 셈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화적 개념의 연관성을 통한 신화해석은 신화

를 벗어나 우리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해가 전적으로 신화적 개념의 연관성에 바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여러 방편 중의 하나가 이러한 신화적 해석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할 뿐인 것이다.

참고문헌

- 赤松智城, 秋葉 隆 共編, 『조선무속의 연구』 상, 옥호서점, 1937.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임석재, 『줄포무악』, 문화재관리국, 1970.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추가편)』, 문교부, 1966.
조르주 비뇨, 『분류하기의 유혹: 생각하기와 조직하기』, 임기대 옮김, 동문선, 2000
최원오, “창세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사유의 재현과 변주-창세, 홍수, 문화의 신화적 연관성을 통해-”, 『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6.
최원오, 부부에 관한 신화적 탐색의 논리, 계간 미네르바 17, 2004 봄.
최원오, “창세신화의 창세원리에 담긴 인문정신-한국과 나바호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12.

Key words: Shamanistic Myths, Mytheme, Mythological Concept, Horizontal Space, Vertical Space

접수일자: 2011. 3. 30
심사기간: 2011. 3. 30~2011. 5. 20
게재결정: 2011. 5. 20